

# “평화를 위한 백만 얼굴 그리기 6만여점 그렸어요”



진도 출신 배회권 작가 '바보들의 웃는 얼굴'전

## 10여년 얼굴 그림 그리기 내년 부산·대구 전시회도

광주시 동구 소재동에 있는 갤러리 생각상자에 들르면 벽면 한가득 얼굴 그림이 걸려 있다. 가로 세로 10×10cm 크기부터 30×30cm까지 노란 얼굴, 파란 얼굴, 빨간 얼굴 등 다양하다.

진도 출신 시온칸(51·본명 배회권) 작가는 약 10년 전부터 얼굴 그림을 그리며 '평화를 위한 백만 얼굴 그리기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그린 얼굴만 6만여점에 달한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바보들의 웃는 얼굴'을 주제로 약 1000점을 선보인다.

시온칸 작가는 "바보는 상위 10% 기득권에 비해 소수민적이고 소박하고 천진한 분들을 가리킨다"며 "웃는 얼굴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림에 등장하는 얼굴은 작가가 직접 만난 사람들을 모델로 했다. 피카소 그림을 보듯 눈을 크게 그려 강조하고 주황, 파랑, 분홍 등 채도가 높은 색을 다양하게 사용해 묘사한다.

공통적인 특징은 초승달을 눈썹으로 표현한 입모양이다. 활짝 벌려 귀코리까지 올라간 입에서는 마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개별 작품 뿐 아니라 약 1000크기 '웃음천국' 시리즈도 출품했다. 서로 닮은 듯 각기 다른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다.

그가 얼굴을 그리며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연유는 개인적인 사연이 숨

어 있다. 약 13년 전 서울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꿈을 꾸게 된다. 전세계 핵폭탄이 동시에 터지며 지구가 폭발하는 내 용이었다. 이 꿈은 시온칸 작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된다.

초현실적 분위기 작품을 그리던 작가 배회권에서 시온칸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다. 시온칸은 기독교에서 유포피어를 의미하는 '시온(Zion)'과 군자를 뜻하는 우리말 '칸'에서 따왔다.

"백만명 얼굴그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평화를 전파해왔다고 생각했어요. 현재까지 6만명 정도를 그렸죠. 지난 2011년에는 평화얼굴협회를 설립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품 모델이 모두 회원이죠. 현재 2만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내년 부산과 대구에서도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미 1만여명 작품을 모았다.

"전세계로 프로젝트를 확장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특히 얼굴을 제대 퍼지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꾸준히 추진하다보면 언젠가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시온 칸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주로 서울에서 활동해왔으며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는 광주에서 만인 화전을 열었다. 광주시 북구가 지난 2014년 제정한 '제1회 장애인 인권문화제'에서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인물화집 '독립투사 105인의 영혼', 시화집 '신들의 사랑-나는 아직도 오르가슴 중이다'가 있다. 문의 062-676-898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웃음 천국'

# 한국 화단 빛낸 원로작가 9인 작품 한자리에

동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갤러리 개관 첫번째 전시

황영성·전뢰진 등 초청

11월 11일까지 특별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뒷편에 자리잡은 세계조각·장식박물관(이하 박물관)은 김상덕 관장이 전세계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약 5000점을 전시하고 있다. 아프리카 소나조각부터 중국 맘모스 뼈 장식품까지 희귀한 소장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시낭송 콘서트 '시·음악·연주'와 함께하는 금남로 연가를 매달 열어 즐겁거리를 더하고 있다.

박물관이 내부에 갤러리 공간(115㎡)을 마련, '박물관갤러리'로 이름 붙이고 미술작품도 전시한다. 명예관장인 정운태 전 조선대 미술대학장이 큐레이터를 맡아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첫번째 전시는 11일부터 11월11일까지 열리는 '원로작가 9인 특별전'이다. 참여작가는 서양화 황영성, 박석규, 송용, 박동인, 박중수, 신동원, 박성현 화백을 비롯해 조각 전뢰진 작가, 정운태 명예관장 등 9명이다. '2016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해 광주 미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기획됐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전뢰진 작가는 대리석으로 만든 '소년상', '재물' 등을 출품한다. 어린 아이, 토끼, 잣먹이는 어머니 등을 새겨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황영성 작 '가족 이야기'

고향과 이웃, 황소를 한식구로 표현하고 있는 황영성 작가는 '고향이야기', '가족이야기' 시리즈를 선보인다. 다양한 색을 사용한 파노라마식 전경을 통해 추억이야기를 그립어낸다.

'갯벌작가'로 불리는 박석규 작가는 갯벌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남도방, 갯벌에 살다'를 출품했다. 우중충한 갯벌을 이룬 담게 승화시킨 점이 특징으로, 일하는 아낙을 소재로 정감어린 분위기를 자아낸다. 최근 남부대학교에 작품을 기증해 조각

공원을 만든 정운태 명예관장은 '청해진의 꿈', '포즈A' 등을 전시한다. 하늘을 바라보는 여성을 모델로 삼아 휴머니즘과 희망을 부각시켰다.

유채와 수채를 넘나드는 송용 작가는 '소리산 계곡', '백강미' 등 자연주의와 인상주의가 결합한 작품을 보여준다. 꽃이 만발한 도로변을 그린 '해질 무렵'에서는 고향에 대한 애정어린 시각이 듬뿍 느껴진다.

또 박동인 작가는 꽃과 오방색을 통해 생명의 환희를 나타낸 '축일'시리즈를 작업했다. 같은 꽃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또는 작가 심리상태에 따라 색과 형태를 달리한 점이 특징이다.

박중수 작가가 그린 '바람의 초상'에서는 자유가 느껴진다.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거나 가만히 서있는 말이 등장한다. 그밖에 신동원 작가의 '수련'은 무겁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성현 작가의 '바이칼 자작나무'는 풍경 뿐 아니라 바람 소리와 빛, 역사까지 담겨있다. 문의 062-222-00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뢰진 작 '재물'

영산재보존회 '전통불교 영산재 시연회'

16일 서구 범룡사

(사)전통불교 영산재보존회(회장 원인스님)가 16일 오후 2시 범룡사(광주시 서구 금호동)에서 '제12회 전통불교 영산재 보존 시연회'를 연다. 광주영산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불교의식이다.

이번 시연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삼귀의 합창, 반야심경 낭송 등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영산재가 펼쳐지는 2부에서는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범음(해령스님), 바라춤(호산스님), '나비춤' 작

은 '나의 꿈 나의 노래'를, 정미희 회원은 연꽃을 그린 '모터스 스토리'를 전시한다. 문의 062-575-8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구상 미술 작가 모임 '전우회' 회원전

16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19일까지 자미갤러리

지난 1974년 광주·전남 구상 미술작가들이 창립한 '전우회'(회장 정흥기)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7~16일)과 자미갤러리(7~19일)에서 제38회 정기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지난 1년간 회원들이 세미나, 스케치 행사를 통해 가사문학과 남도 풍경을 담은 서양화 작품 39점을 선보인다.

자미갤러리에서는 '자미에서 무등을 보다'로 전시가 열린다. 박남재, 조규일 고문을 비롯해 정흥기 회장 등 회원 18명 작품을 전시한다. 박남재 화백은 작품 '중인리의 봄'을 통해 매화가 만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조규일 화백이 출품한 '주왕산 아가씨'에서는 여인의 천진난만한 미소와 어우러진 서정적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정흥기 회장은 빨강, 분홍꽃으로 캔버스를 가득 채운 '환희'를 출품한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사색으로 무등을 담다'를 주제로 회원 21명 작품이 전시된다. 이신자 회원은 이상 세계를 담



조규일 작 '주왕산 아가씨'

은 '나의 꿈 나의 노래'를, 정미희 회원은 연꽃을 그린 '모터스 스토리'를 전시한다. 문의 062-575-8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영산재보존회 '전통불교 영산재 시연회'

16일 서구 범룡사

(사)전통불교 영산재보존회(회장 원인스님)가 16일 오후 2시 범룡사(광주시 서구 금호동)에서 '제12회 전통불교 영산재 보존 시연회'를 연다. 광주영산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불교의식이다.

이번 시연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삼귀의 합창, 반야심경 낭송 등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영산재가 펼쳐지는 2부에서는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범음(해령스님), 바라춤(호산스님), '나비춤' 작

은 '나의 꿈 나의 노래'를, 정미희 회원은 연꽃을 그린 '모터스 스토리'를 전시한다. 문의 062-575-8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용·박동인·박중수·신동원·박성현·전뢰진·정운태

###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10.11(화)~11.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개막일시: 2016. 10. 11 pm 5:00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신도리니움의 하얀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학세수욕장에서 바라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709실)

\* 기명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금 일부를 납부 시 약 6% 할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벨리체 송아클럽	거제 마라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야리프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기명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명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성수기 주중 50%	캐시 회원 요금의 50%

전국 13개 특급 리조트 - 비발디파크(스키/리조트/오션월드/엔터테인먼트) - 소노벨리체 - 말미도 골프 앤 리조트 - 울머치 호텔&리조트 양양 - 울머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경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가계 마라나 - 엠블호텔 아수 - 엠블호텔 고양

패밀리/스위트 납입계약 | 예금주 (주)대명레저산업 | 지명 계좌로 일관된 입회금만 유효합니다.  
우리의전화 1005-900-997807 국민은행 614701-04-002581 신한은행 295-05-061967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